

【 해외금융뉴스: 일본 】

저가 생명보험 상품 큰 인기

□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제 침체 장기화로 소비자들의 저가 소비 경향이 강해지자 보장내용을 단순한 대신 보험료를 대폭 낮춘 저가 생명보험 상품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음.

- 손해보험재팬 자회사인 히마와리생명(히마와리생명)은 기존 수입보장 의료보험의 31개 특약을 8개로 대폭 줄여 기존 상품보다 7.9~12.5% 저렴한 신상품(건강지킴이(健康のお守り))을 작년 8월에 출시해 지난달까지 당초 목표의 2배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리고 있음.
- 이 상품은 또한 가입자가 비흡연자이거나 고혈압 및 비만 증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입 전 1년간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보험료 추가할인을 해 줌으로써 경기악화로 인해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도록 만들어짐.
- 아이오이생명도 12~15% 인하된 보험료에 혈압 및 비만도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나 비흡연자에게는 더 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한 수입보장 의료보험(저스트 원 W(ジャストワンW))을 작년부터 판매해 올해 3월말까지 전년동기대비 80% 이상의 매출 신장을 보임.
- 아메리카패밀리생명(아메리카패밀리생명)과 오릭스생명(오릭스생명) 역시 통신 판매로 인건비를 줄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저가 종신의료보험이 보험료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.

□ 저가 생명보험은 특히 대규모 인원을 운영하는 대형 보험회사들보다 손쉬운 인건비 절감이 가능한 손해보험 생명보험 자회사 및 소규모 외국계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출시되고 있음.

- 많은 담보와 인적 서비스로 승부하는 대형 생명보험회사들과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손해보험계 생명보험회사들 및 외국계 보험회사들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비자들의 저가 선호 현상이 유지될 경우 현재의 저가 생명보험 판매 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(FujiSankei Business | 5/8)